

한일성공회 선교협동 30 주년 기념대회 공동성명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칼을 빼어드는 일이 없어
다시는 군사를 훈련하지 아니하리라. (미가 4:3)'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는 하느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2014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제주도에서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일본성공회 수좌주교를 위시하여 한국의 3개 교구, 일본의 11개 교구의 주교와 사제, 신자들이 참가하여 "한일성공회 선교협동 30 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파송 선교사와 여성, 청년 대표를 포함하여 한국 측 36명, 일본 측 51명, 총 87명이 참가했다.

양국 성공회는 2004년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한일성공회 선교협동 20 주년 공동성명"에 따라, 지난 10년에 걸쳐 한일성공회 청년 세미나와 사회선교에 관한 한국 연수를 실시하고 세계성공회 평화협의회 개최, 한국인 선교사 파송 등 다양한 선교협동을 실시해왔다.

한일 성공회의 선교 협동이 깊이와 폭을 더해가는 것과 달리, 지금 한일 양국의 관계는 좋은 관계라 할 수 없다. 영유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역사인식 등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놓여 있다. 일본에서는 '헤이트 스피치'나 혐한 문서 등으로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악의적인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어, 국제연합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는 사회문제로까지 되고 있다.

1984년의 공식적인 선교협동 시작으로부터 30년을 맞아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선교협동 관계를 뒤돌아보고, 흥미한 시대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 대회의 주제인 '생명, 정의,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의 양국 성공회의 역할에 대해 협의하고 한층 더 상호 이해와 선교협동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우리는 이 대회가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된 의의와 과제(군사기지, 자연환경, 역사)도 깊이 인식했다.

첫째 날, 부산교구 박동신 주교의 집전과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우에마츠 마코토 주교의 설교로 개회성찬례를 드렸다. 특히, 제주교회의 어린이 특송은 참가자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우에마츠 주교는 설교를 통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근거가 되는 용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다.

둘째 날은 '과거사의 반성과 신앙적 화해와 용서'라는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양권석 신부의 주제강연이 있었고, 이어 양국 성공회 발제자들이 지금까지의 선교협동의 역사를 돌아보며 40주년을 향한 선교과제를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그룹토의를 가졌다. '가자, 핵을 넘어 동북아의 평화로'라는 주제로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및 후쿠시마현 신치마치에서 개최된 '2014년 한일 청년세미나' 참가자들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의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보고, 아픔을 나눔으로서 발견한 연대의 기쁨"을 참가자들과 함께 공유했다.

셋째 날, 일본성공회의 헌법 9조, 오키나와, 원자력 발전소, '헤이트 스피치'와 대한성공회의 'G.F.S. 우물가 프로젝트(탈북여성지원)', 'TOPIK(Towards Peace in Korea, 남북평화통일선교)'의 현장보고가 있었으며 전체토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준비했다.

우리들은 대회 중 성서연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약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모든 피조물들의 아픔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적 과제임을 확인했다.

마지막 날에는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제주도에 새겨진 현대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예배를 드렸고, 제주교회에서 청년들의 인도로 진행된 폐회예배를 통해 “증오와 편견, 민족과 차이를 넘어 진리와 정의를 담대히 선포할 것을 촉구”하는 김근상 주교의 힘찬 설교, 그리고 대전교구 유낙준 피선주교의 파송 선언으로 선교협동 40년을 향한 새 발걸음을 함께 내딛었다.

우리는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참가자 모두를 새 역사로 파견하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후의 선교협동 과제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는 지속적인 선교협동을 위해서 관구 차원에서 그것을 계획, 추진하는 기구를 설치한다.
2. 양국 성공회는 인종차별적, 배타적 극우주의 운동에 대한 2014년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의 총회 결의에 따라 향후 재일한국조선인을 포함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3. 양국 성공회는 청년 교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하는 청년활동을 해나간다. 그를 위해 한일 양국의 관계를 넘어 주체적인 청년 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원협력체제를 구축한다.
4. 양국 성공회는 오키나와와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반대하고, '2013년 제 2회 세계성공회 평화협의회 in Okinawa의 성명'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5. 양국 성공회는 '바람의 섬에서 성령의 섬으로'라는 제주교회의 선교비전을 공유하고, 제주도에서 생명, 정의,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의 신앙적 실천을 모색한다.
6. 양국 성공회는 '선교협동 20주년 기념대회' 공동성명에 게재된 여성의 교류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하고, 여성이 서로 배우고 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의사 결정 기관 및 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7. 양국 성공회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남북통일의 노력이 중요한 선교의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TOPIK(Towards Peace in Korea) 사업을 통해 적극 협력한다.
8. 양국 성공회는 다민족·다문화·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 한국어와 일본어 예배를 시작하도록 노력한다.
9. 양국 성공회는 세계 성공회의 선교 5대 지표(The Five Marks of Mission)를 공유하고, 그 하나인 '창조질서 보존과 지구 생명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와 방사능(핵에너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앙의 과제로써 실천에 힘쓴다.
10. 양국 성공회는 한일 양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역사 학습을 심화하고, 서로의 선교방침을 교환하는 신학과 예배, 선교와 사목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한다.
11. 양국 성공회는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도하며, 정보교환과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진척 상황을 매년 확인, 10년 후인 2024년에 위의 내용에 대한 평가의 자리를 갖고, 그 이후의 선교협동에 대해 협의한다.

2014년 10월 23일

한일성공회 선교협동 30주년 기념대회
공동대회장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김 근 상
 일본성공회 수좌주교 우에마츠 마코토
 참가자 일동